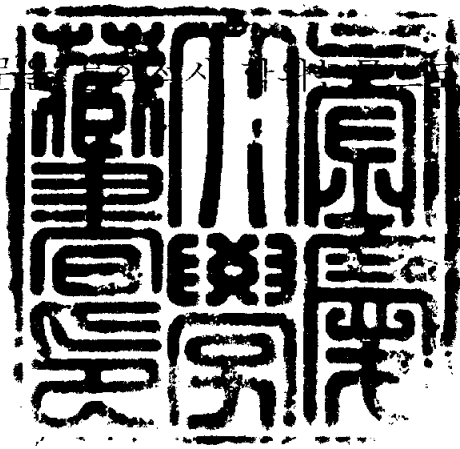


문학석사 학위논문

영어와 한국어에 나타난 ‘화(anger)’의 은유적
양상에 대한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

지도교수 김 은 일

이 논문



제출함

2003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정 명 희

정명희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2년 12월 일

주 심 문 학 박사

전 춘 배



위 원 문 학 박사

윤 희 수



위 원 언어학박사

김 은 일 (인)

<차 례>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3
2.1 은유의 개념	3
2.2 감정어의 은유적 양상	5
2.3 연구 방법 및 한계	8
III ‘화(anger)’의 은유적 양상 비교	11
3.1 ‘화(anger)’의 동사 연어	11
3.2 ‘화(anger)’의 은유적 양상 비교	15
3.2.1 열 은유	17
3.2.2 불 은유	22
3.2.3 물 은유	27
3.2.4 용기 은유	30
3.2.5 적 은유	34
3.2.6 성가심 은유	36
3.2.7 물체 은유	37
3.2.8 통제 은유	43
3.2.9 장소 은유	44
3.2.10 빛 은유	46
3.2.11 더러움 은유	47
3.2.12 공포 은유	48
3.2.13 음식물 은유	50
3.2.14 기타 은유	51
3.3 은유적 양상 요약	52

VI 결론	55
-------------	----

ABSTRACT	56
----------------	----

참 고 문 헌	58
---------------	----

<표차례>

<표 1> 은유적 양상과 그 빈도수	53
---------------------------	----

I 서론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개념적 지식, 신체적 경험, 담화의 의사소통 기능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의 관점에서는 ‘감정’도 하나의 언어 연구 대상으로 취급한다¹⁾.

은유에 대한 관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비롯된다. 이 시대에는 은유가 단지 수사적인 기능만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으므로, 은유는 수 천년 동안 주로 문학과 문체론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인지문법이 발달한 이후 Lakoff & Johnson(1980), Levinson(1983), Langacker(1987), Lakoff(1987), Saeed(1997) 등에 이르러 은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으며²⁾, Lakoff(1980, 1987), Kövecses(1986, 2000), 임지룡(1999, 2000, 2001a, 2001b, 2001c, 2002) 등은 감정어를 은유적 시각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³⁾.

그러나 감정어의 분석에 대한 이전 연구들은 그 분석 자료가 문학적인 글로 제한적이거나, 저자들의 직관에 의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유적 양상이 무엇인지 알

1) 이것은 언어를 자율적 구성체로 보고, 언어 자체에 내재하는 구조와 의미의 규칙성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려고 하는 자율언어학(autonomous linguistics)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감정’은 자율언어학과 인지언어학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주제이며, 언어와 인지에 관한 쉽고 상세한 논의는 Ungerer & Schmid(1996)를 참조.

2) 이 외에도 Wierzbicka(1999)가 있다.

3) Kim(1978)에선 영어와 한국어의 감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한국어 은유에 관한 쉽고 상세한 논의는 임지룡(1997), 박영순(2000)을 참조.

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기본적인 감정어 중의 하나인 '화(anger)'가 어떠한 은유적 양상으로 영어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지를 코퍼스(corpus)⁴⁾를 기반으로 하여 코퍼스 분석에 따른 빈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은유적 양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2장에선 '은유'에 대한 개념과 '감정어의 은유적 양상'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 방법에 대해 밝힌다. 제 3장에선 제 2장에서 밝힌 연구 방법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화(anger)'의 은유적 양상을 비교해 본다. 마지막으로 제 4장에선 앞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다.

4) 한국어로는 '말뭉치' 혹은 '말모듬'으로 번역하는 코퍼스(corpus)는 글 또는 말 텍스트를 모아 놓은 것이다.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모아 놓은 성경은 이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일종의 코퍼스이다. 혹은 셰익스피어의 저작들을 모아 놓은 것도 셰익스피어 코퍼스이다. 이 코퍼스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은유에 대한 고전적 개념과 20세기 들어와서 Lakoff & Johnson(1980)에 의해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 은유의 개념을 살펴보고 추상적인 ‘화(anger)’가 지니는 은유적 양상을 비교한 기존 연구와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1 은유의 개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시학(Poetics)’에서 ‘은유’를 “전혀 닮지 않은 것들 속에서 닮은 점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한 사물에 그 사물이 아닌 다른 사물에 속하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전이(transference)는 “속(genus)에서 종(species)으로, 종에서 속으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혹은 유추(analogy)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Aristotle, 1990).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정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벗어난 것인, 수사적이며 장식적인 것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은유를 언어학의 일부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20세기에 들어와서 Lakoff & Johnson(1980)에 의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Lakoff & Johnson(1980)

은 “은유란 단순히 화려한 문장의 장식이나 비유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의하면, 은유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개념영역들에 속한 것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일컫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개념들 중에서 용어가 사용된 원래의 개념영역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 하고, 용어가 새롭게 사용된 개념영역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과 같은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란 은유적 표현을 살펴보자.

- (1) a. You’re *wasting* my time
- b. How do you *spend* your time these days?
- c. I’ve *invested* a lot of time in her.

(1)에서 ‘시간은 돈이다’란 은유적 표현은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돈’이라는 구체적인 가치와 관련시켜 표현한 것으로, ‘시간’을 ‘돈’과 같은 표현으로 파악한 것이다. 즉, 우리는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낭비(wast) · 소비(spend) · 투자(invest)한다’ 등의 구체적인 개념과 관련시켜 표현한다. 따라서 ‘시간’이라는 ‘근원영역’을 ‘돈’이라는 ‘목표영역’과 관련시켜 표현하여 (1a)와 같이 시간을 ‘낭비(wast)’하고, (1b)와 같이 시간을 ‘소비(spend)’하고, (1c)와 같이 시

간을 '투자(invest)'하는 은유적 표현이 가능해 진다.

2.2 감정어의 은유적 양상

추상적인 개념인 '화(anger)'라는 목표영역을 근원영역과 관련지어 그 은유적 양상을 밝힌 연구로는, 영어에선 Lakoff(1987)와 Kövecses(1986, 2000) 등이 있고, 한국어에선 임지룡(2000)이 있다⁵⁾.

우선 Lakoff(1987)는 '화(anger)'를 아래 (2)와 같이 4개의 은유로 분류하였다⁶⁾.

- (2) a. 용기 속의 액체의 열: His pent-up anger welled up inside him.
b. 불: He was consumed by his anger.
c. 광기: He got so angry, he went out of his mind.
d. 적대자: I'm struggling with my anger.

5) 이 외에도 한국어의 감정어를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으로 나누어 그 은유적 양상을 비교한 연구로는, 임지룡(2000, 2001a, 2001b, 2001c, 2002)이 있으며, 영어에선 Johnson-Laird(1989), Kövecses(1989, 1990, 1998), Niemeier & Driven, (eds.) (1997) 등이 있다.

6) 영어의 'anger'에 관한 기존 연구를 살펴봄에 있어 Lakoff(1987)을 선택한 이유는, Kövecses(1986)는 'Berkeley Cognitive Science Report Series in May(1983)'에서 Lakoff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며, Kövecses(2000)은 Kövecses(1986)의 내용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Lakoff(1987)에서는 Kövecses(1986)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들이 있다.

(2)에서 보듯이, Lakoff(1987)은 '화(anger)'라는 목표영역을 각기 다른 근원영역 - 용기 속의 액체의 열, 불, 광기, 적대자 - 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Kövecses(2000)⁷⁾에 선 영어의 '화(anger)'를 아래 (3)과 같이 12개의 은유로 분류하였다.

- | | |
|----------------------|---|
| (3) a. 용기 속의 뜨거운 액체: | She is <i>boiling with anger</i> . |
| b. 불: | His anger is <i>smoldering</i> . |
| c. 광기: | The man was <i>insane with rage</i> . |
| d. 적대자: | I was <i>struggling with my anger</i> . |
| e. 사로잡힌 동물: | He <i>unleashed his anger</i> . |
| f. 짐: | He <i>carries his anger around with him</i> . |
| g. 공격적인 동물의 행동: | Don't <i>snarl at me!</i> |
| h. 침해: | Here I <i>draw the line</i> . |
| i. 신체적 성가심: | He's a <i>pain in the neck</i> . |
| j. 자연력: | It was a <i>stormy meeting</i> . |
| k. 작용하는 기계: | That really <i>got him going</i> . |
| l. 사회적 우월자: | His actions were completely
<i>governed by anger</i> . |

7) Kövecses(2000)은 Kövecses(1986)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화(anger)'에 대한 은유적 양상을 밝힌 연구로 Kövecses(2000)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에서 보듯이 Kövecses(2000)는 영어의 '화(anger)'라는 목표영역을 각기 다른 근원영역 - 용기 속의 뜨거운 액체, 불, 광기, 적대자, 사로잡힌 동물, 짐, 공격적인 동물의 행동, 침해, 신체적 성가심, 자연력, 작용하는 기계, 사회적 우월자 - 으로 분류하였다.

Kövecses(2000)는 (3e~l)에서 보듯이, Lakoff(1987)가 4가지로 분류해 놓은 '화(anger)'에 대한 은유적 양상에서 8개의 근원영역을 더 추가시켜 12가지의 근원영역으로 '화(anger)'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분류 중 (3c)는 'anger'의 동의어인 'rage'가 사용되었고, (3g~k)는 '화(anger)'의 비유적 표현에 대한 근원영역을 살핀 것이다.

임지룡(2000)은 한국어 '화'를 아래 (4)와 같이 6개의 은유로 분류하였다.

- (4)
- a. 열: 운전사는 마침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 b. 불: 가슴에서 타는 분노의 불길 때문이었다.
 - c. 적: 김훈장은 분을 못 이겨 부들부들 떨었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들이었다.
 - d. 음식물: 머느리를 직장으로 보낸 후 아직까지 분을 삭이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왔다.
 - e. 물체: ...화를 감추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 f. 파도: ...파도같은 분노가 그만 가려지겠느냐.

(4)에서 보듯이, 한국어 ‘화’라는 목표영역을 각기 다른 근원영역 - 열, 불, 적, 음식물, 물체, 파도’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4)를 통해 볼 때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은 ‘열·불·적·자연력⁸⁾ 은유’이며, 영어의 ‘anger’에서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은 ‘광기·사로잡힌 동물·짐·공격적인 동물의 행동·침해·신체적 성가심·작용하는 기계·사회적 우월자 은유’이며, 한국어의 ‘화’에서만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은 음식물·물체 은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연구 방법 및 한계

‘화(anger)’의 은유적 양상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에 사용된 언어자료는 Lakoff(1987)와 Kövecses(2000)에선 저자의 직관과 관용어(idiom)였다. 따라서 2.2의 (3g~k)는 ‘anger’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화(anger)’에 대한 은유적 양상이었으며, 저자의 직관에 의한 언어 자료 추출은 빈도수에 대한 타당성을 지니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임지룡(2000)의 언어자료는 한국 현대소설 텍스트에서 ‘화’를 묘사한 대목이었으므로 한국어 ‘화’에 대한 은유적 양상 분류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예문들을 적용한 것이다.

8)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화’에서 ‘파도 은유’를 ‘자연력 은유’로 분류한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방안으로 본 논문에선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영어와 한국어의 '화(anger)'의 은유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영어 자료는 BNC(British National Corpus)에서 'anger'가 들어가는 문장을 임의로 500개 추출하였으며, 한국어 자료는 KAIST Concordance Program의 '한국어 용례색인프로그램'을 이용해 '화'가 들어가는 문장을 임의로 500개 추출하였다. 추출한 각 500개 문장에서 '화(anger)'라는 명사와 서술어 관계를 이루는 '동사'를 찾아 '화(anger)'가 어떤 동사들과 서술어 관계를 이루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렇듯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와 같이 내용어들끼리 긴밀한 공기 관계를 형성하는 구성을 '언어(collocation)⁹⁾'라고 하는데, 본 논문에선 '화(anger)'라는 '명사'와 '동사'가 긴밀한 공기 관계를 이루는 '동사언어'를 중심으로 그 은유적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¹⁰⁾.

또한 영어와 한국어의 '화(anger)'의 은유적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두 언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과 각 언어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과 그 빈도수를 살펴보기로 한다¹¹⁾.

9) 언어(collocation)는 어군이 지닌 품사적 성질에 따라 '동사 언어(verb collocation)', '명사 언어(noun collocation)', '한정사 언어(determiner collocation)', '형용사 언어(adjective collocation)', '부사 언어(adverb collocation)', '전치사 언어(preposition collocation)', '연결사 언어(connective collocation)' 등의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조성식 외 1990).

10) 한국어 언어현상에 관한 연구로는 '김진해(2000)'를 참조.

11) 어휘 의미를 분석하는 틀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Driven & Verspoor 1998). 하나는 형태(form)를 중심으로 그 형태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념(concept)을 중심으로 의미적으로 연관된 단어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나다'라는 문장에서 '화'라는 명사 자체가 '나다'란 동사와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만 다루는 것은 '형태 중심의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영어의 'anger'의 은유적 양상을 살피는 연구 자료에서 'His wife, red spots of anger high on her cheeks'와 같은 문장처럼 명사 'anger'에 대한 서술어가 빠져있는 문장도 있었으며, 'He looked up his eyes dark with anger'와 같은 문장처럼 'anger'를 서술해 주는 동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문장은 연구 분석 자료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영어의 'anger'는 분석한 180개의 문장이 본 연구 분석자료가 되며¹²⁾, 한국어 '화'의 연구 자료에 사용한 문장은 500개 모두 '동사'와 언어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에 500개 문장 전부가 본 연구 분석자료가 된다.

그러나 '피가 들끓는다'란 표현이 '화'가 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화'가 나는 개념과 의미적으로 연관된 표현인 '피가 들끓는다'라는 '화'와 관련된 다양한 의미를 살피는 것이 '개념 중심의 연구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 중 '형태 중심의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의 은유적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2) 또한 영어의 'anger'와 동사언어를 이루는 것 중, 'anger'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하나 'turn up'처럼 목적어가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놓일 수 있으며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놓일 수 있는 경우는 본 연구 자료로 이용하기로 한다.

III ‘화(anger)’의 은유적 양상 비교

본 장에서는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동사 연어현상을 일으킨 동사들을 빈도수 별로 정리하고, 이러한 동사 연어현상에 의한 은유적 양상을 ‘열·불·물·용기·적·성가심·물체·통제·장소·빛·더러움·공포·음식물 은유’ 등으로 나누어 영어와 한국어의 ‘화(anger)’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은유적 양상과 다르게 나타난 은유적 양상을 그 빈도수와 함께 비교하고자 한다.

3.1 ‘화(anger)’의 동사 연어

‘화(anger)’와 관련된 형태중심의 연구방법을 채택함에 있어 그 자료로 ‘화(anger)’와 동사연어관계를 이루는 동사들을 채택하여 각 동사의 빈도수를 살펴보고 그 빈도수에 근거해 영어와 한국어에서 ‘화(anger)’의 은유적 양상 빈도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영어의 ‘anger’와 동사 연어를 일으키는 동사들을 빈도수와 함께 나열하면 (5)와 같다.

(5) a. 14번(7.7%) : feel

예) He *felt* the *anger* and the bitterness of the

woman....

b. 12번(6.6%) : express

예) But we cannot skip to this stage until our
anger has been expressed.

c. 6번(3.3%) : see

예) Hitch looked at him and *saw* the *anger* in
Scott's eyes.

d. 5번(8.2%) : contain, make, turn

예) He took a deep breath to *contain* his *anger*
and touched the Labrador.

e. 4번(6.6%) : direct, subside, understand

예) And she realized that the *anger* had not
been *directed* at her at all.

f. 3번(3.3%) : control, fear

예) I tried to *control* the *anger* he was feeling.

g. 2번(19.8%) : add, avoid, boil (up), bring (out),

communicate, drain, experience, grow, keep, last,
meet, *provoke*, release, risk, shake (with), share
(with), take over, tremble (with)

예) He did not, but it *added* to his *anger*.

h. 1번(44.5%) : arise, bite, burn, cause, clear, combine,

confront, consider, consolidate, convey, cool
(down), curb, cut, describe, develop, displace,
display, distill, divide, ebb, entail, enter,
explode, explore, export, face, flicker, flush,
focus, force, gain, generate, get, glimpse, glint,
glitter, go, greet, grunt, increase, intrude,
involve, lay, leave, lend, let, loose, melt,
moderate, overcome, placate, ponder, project,
purge, quiver, race, react, recognize, reflect,
remain, render, restrain, seethe, sense, show,
smolder, speak, strike, suffer, suit, suppose,
surprise, sweep, think, thud, transfer, trigger,
vanish, weep

예) The anger has arisen because most
farmers believe that.

(5)에서 보듯이, 영어의 'anger'와 가장 많은 '동사 연어'를 이루는 동사는 'feel'이다.

한국어 '화'는 모두 18 종류의 동사들과 '동사 연어'를 이루었으며 그

빈도 수에 따른 동사의 종류를 빈도수와 함께 나열하면 (6)과 같다.

(6) 427번(85.6%) : 나다(내다)

예) 나는 화가 나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25번(5.0%) : 치밀다

예) 그 남편을 생각하니 은근히 화가 치밀기까지 했다.

10번(2.0%) : 풀다(풀리다, 풀어지다)

예)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다.

6번(1.2%) : 참(지 못 하)다

예) 그 친구의 태도에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5번(1.0%) : 치밀어 오르다, 치솟다

예) 허허. 화가 치밀어 오르고 기가 찰 노릇일세.

3번(0.6%) : 오르다, 삭(이)다, 억누르다

예) ... 그 말을 듣고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몸이 사시나무 떨 듯 떨렸다...

2번(0.4%) : 돋우다, 돋구다, 가라앉다

예) 화를 돋우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1번(0.2%) : 치받치다, 솟다, 꺾차다, 누그러뜨리다, 폭발하다,
번지다, 못 이기다
예) 그녀는 너무 **화가** **치받혀** 말이 제대로 안
나왔다.

위의 (5)와 (6)에서 영어의 'anger'는 모두 180개 문장에서 108 종류의
동사와 동사연어현상을 이루었으며, 한국어는 모두 500개 문장에서 18
종류의 동사들과 동사연어현상을 이루었다.

영어의 'anger'에선 한국어의 '화'에서처럼 하나의 동사에 집중적인
연어현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108 종류의 동사들과 다양한 연어현상을
이루었다. 이에 반해 한국어의 '화'는 '나다'란 동사에 집중적인 연어현
상을 보였으며, 그 종류도 영어에 비해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5)와 (6)에서 살펴본 동사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 절에서 영어와 한국
어에서 '화(anger)'의 은유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3.2 '화(anger)'의 은유적 양상 비교

이 절에서는 3.1에서 살펴보았던 영어의 'anger'와 한국어 '화'와 동사
연어현상을 일으킨 단어들의 은유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화(anger)'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어떻게 구체적인 의미와 연결시켰는지

에 대해 그 은유적 양상을 다양한 은유적 양상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영어의 'anger'와 한국어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은유적 양상과 다르게 나타난 은유적 양상, 또는 각 언어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본 절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화(anger)'의 은유적 양상을 '열·불·물·용기·적·성가심·물체·통제·장소·빛·더러움·공포·음식물' 등의 근원영역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며, 각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은유적 양상을 아울러 비교해 본다.

2장에서 밝힌 '화(anger)'의 은유적 양상과 비교해 볼 때, 영어의 'anger'에 관한 은유적 양상 중 '열·불·적·성가심 은유'는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이나 본 연구에선 여기에 '물·빛·더러움·통제·물체·장소 은유'가 더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 중 '짐·사로잡힌 동물의 행동·침해·자연력·작용하는 기계·사회적 우월자 은유'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어의 '화'에 관한 은유적 양상 중 '열·불·적·음식물·물체 은유'는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이나 본 연구에선 여기에 '물·용기·성가심 은유'가 더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 중 '파도 은유'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의 'anger'는 12가지 은유적 양상을, 한국어 '화'는 모두 8가지 은유적 양상을 지니며, 두 언어를 합쳐 모두 13가지 은유적 양상을 지닌다.

또한 영어의 'anger'와 '화'의 은유적 양상을 빈도수별로 정리하고 각 언어에서 나타나는 '화(anger)'에 대한 은유적 양상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각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anger)'에 대한 은유적 양상의 빈도를 비교할 수 있다.

3.2.1 열 은유

'열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는 영어에선 'boil, cool, seethe' 등이며, 한국어에선 '오르다, 누그러뜨리다' 등으로 이들의 '근원영역'은 '열'이며 '목표영역'은 모두 '화(anger)'이다.

'화(anger)'는 열'이라는 은유에 대한 언급은 Lakoff(1987)과 Kövecses(2000)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또한 Lakoff & Kövecses(1987)과 Kövecses(2000)에선 '화(anger)'를 '용기 속의 뜨거운 액체'로 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boil'이란 단어를 Lakoff(1987)에선 '열'로 보았으나, Lakoff & Kövecses(2000)에서는 '용기 속의 뜨거운 액체'로 보았다. 우선 (7)에서 화를 '열'로 본 은유에 대해 살펴보자.

- (7) a. He's *boiling with anger*.
b. *Cool down your anger*.

(7)에서 '화'는 'boil(끓는)'인 것이며, 혹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가 (7b)에서 보듯이 'cool down(차가워짐)'할 수 있다. 또한 '화(anger)'를 '용기 속의 뜨거운 액체'로 본 은유에 대해 언급하면 (8)과 같은데 이것은 '화(anger)'를 '액체'로 본 경우로 '화(anger)'가 열을 지니고 용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용기 안에 담겨져 있는 '화(anger)'는 그 강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상승된 액체는 (8)과 같은 단계로 그 양상을 달리하게 된다.

- (8)
- a. His pent-up *anger welled up* inside him.
 - b. He was *bursting with anger*.
 - c. I *suppressed my anger*.
 - d. When I told him, he just *exploded with anger*.
 - e. His *anger finally came out*.

(cf. Kövecses 1986: 15~16)

(8)에서 '용기 안에 담겨져 있던 화'는 (8a)에처럼 '울적한' '화(anger)'가 그의 마음 속에서 'welled-up(끓어올랐다)'란 은유가 나올 수 있으며, (8b)에서처럼 격한 '화(anger)'는 용기에 대한 압력을 생기게 하고, 이러한 압력을 누르는 경우가 (8c)에서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화(anger)'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8d)에서처럼 사람이 'exploded(폭발하

게)'되고¹³⁾, 예문 (8e)에서처럼 이러한 폭발 뒤엔 내용물이 밖으로 나온다(came out). 즉, '신체는 감정의 용기'이며¹⁴⁾ '화(anger)'는 '용기 속 액체의 열'인 것이다. '화(anger)'의 강도(intensity)가 증가하면 액체도 상승한다.

이러한 '열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원래 사용되는 의미와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예문을 통해 비교해 보자. 우선 'boil'이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지닌 (9a)¹⁵⁾와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문장인 (9b)를 살펴보자.

- (9) a. I stood in the kitchen,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b. *Anger was boiling up inside me*.¹⁶⁾

(9a)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boil(끓다)'란 동사는 '열'을 받아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의미를 지닐 때 사용되는 동사이다. (9a)에서 '물이 끓기

13) '화가 폭발한다'는 것에 대해선 3.2.2에서 언급할 '불 은유'와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폭발한다'는 것을 '불 은유'로 보고 그 은유적 양상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14) 신체가 하나의 '용기'라는 것은 3.2.4에서 다룰 '용기 은유'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15) 본 연구에서 각 동사가 지니는 원래 의미를 살펴보는 문장은 주로 Collins Cobuild 영어사전(1995)을 참조하였다.

16) 본 연구와는 별도로 '화(anger)가 열이다'란 은유적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I'm so mad my blood is boiling over.

You're so angry I can see the steam coming out of your ears.

(이보영 외 2002: 22-23)

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물'이 '열'을 받아서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를 지닌 'boil'이 'anger'로 옮겨가게 되면, (9b)에서처럼 '화가 끓다'란 은유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seethe'가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지닌 (10a)와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문장인 (10b)를 살펴보자.

(10) a. The hot water in the pot is *seething*.

b. Her chin rose as she *seethed with anger*.

(10a)에서 동사 'seethe'는 원래 '끓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 의미가 'anger'로 확대되어 '화가 끓는다'란 은유적 표현이 만들어졌다. Lakoff(1987)에서도 'seethe'를 '열'로 보고 'His anger is seething'란 문장을 '화가 끓는다'란 은유적 문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anger'를 '열'로 본 은유적 표현에 해당하는 동사는 'cool'이다. 이것은 Lakoff(1987)에서 밝힌 '열 은유' 양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지닌 (11a)와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문장인 (11b)를 살펴보자.

(11) a. The rain has *cooled* the air.

b. ...give her mother time to *cool down* and not stoke her

anger further by trying to defend Molly.

(11a)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cool'은 '더운 열을 시원하게 한다'란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동사의 의미가 'anger'로 확대되어 '화가 식다'란 표현이 된다.

다음으로 한국어 '화'에서 '열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를 살펴보자. 한국어에서 '열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는 '오르다, 누그러뜨리다'이다. 이러한 '열 은유'에 해당하는 표현 중 '오르다'가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본 연구 분석자료에서 발견된 의미와 비교해 보자.

- (12) a. 내 동생은 어제 밤새 열이 30도나 올랐다.
b. ...그 말을 듣고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고 몸이 사시나무
떨 듯 떨렸다...

(12a)에서 보듯이 '오르다'는 주로 '열'이 목적어가 되어 '열이 높아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누그러뜨리다'가 원래 사용되는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의미를 비교해 보면 (13)과 같다.

- (13) a. 추위가 좀 누그러진 것 같다.
b. ...여보시오,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보시오...

(13a)에서 보듯이 ‘누그러뜨리다’의 대상은 ‘추위’로 이것은 ‘온도’의 자질을 지닌 것이다. 이것이 ‘화’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 ‘화는 열이다’란 은유적 양상을 지니게 된다.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밝힌 ‘열 은유’ 양상은 본 연구 자료에서 영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발견되었지만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의 ‘boil, seethe(끓다)’와 같은 표현은 본 연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며, ‘cool(차갑게 하다)’란 표현도 본 연구의 자료에서 살펴볼 수 없었다. 한국어에서도 ‘화가 끓다 (boil, seethe)’란 표현이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자료에선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또한 한국어에선 ‘화를 식히다’란 표현은 있지만 ‘화를 차갑게 하다’란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3.2.2 불 은유

‘불(fire)’이란 ‘타면서 빛과 열을 내는 것’을 말한다(남영신 1999). ‘불 은유’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는 ‘burn, explode, smolder, trigger’ 등이며, 한국어 동사는 ‘치밀다, 치밀어 오르다, 치받치다, 폭발하다’란 동사로 이들의 근원영역은 ‘불’이며 목표영역은 ‘화(anger)’이다.

‘불 은유’¹⁷⁾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원래 사용되는 의미와 은유적으로

17) ‘불 은유’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영어에선 ‘erupt like a volcano’로 나타내기도 한다.

사용되는 것을 예문을 통해 비교해 보자. 우선 'burn'이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지닌 (14a)와 본 연구의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문장인 (14b)를 살펴보자.

- (14) a. *Fires were burning out of control in the center of the city.*
b. *Justice Bhagwati's leading opinion burns with anger.*

(14a)에서 알 수 있듯이 'burn(타다)'이란 것은 원래 'fire(불)'에 사용되는 동사이다. 이러한 동사가 (14b)와 같이 'anger'에 적용되어 '화가 타다'란 표현을 만들었다. 한국어에선 '화가 타다'란 표현은 본 연구의 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었으며, 'burn'을 '불'로 본 은유적 양상은 Lakoff(1987), Lakoff & Kövecses(1987), Kövecses(1986, 2000) 등에서도 동일하게 'burn'을 '불'로 보았다.

다음으로 'explode'가 원래 사용되던 의미를 지닌 문장인 (15a)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15b) 문장을 비교해보자.

- (15) a. *They were clearing up when the second bomb exploded.*
b. *Peter can explode anger at James and Mary.*

Mr. Mitchell totally erupted like a volcano in there.

(이보영 외 2002: 14)

(15a)에서 보듯이 원래 ‘explode’의 목적어는 ‘bomb(폭탄)’과 같이 불을 낼 수 있는 물체이다. 이러한 원래 ‘explode’의 목적어가 ‘anger’로 옮겨와 ‘불 은유’란 은유적 양상이 되었다. ‘explode(폭발하다)’란 동사는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 ‘화’에 대한 자료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Lakoff(1987)에선 ‘explode’를 ‘용기 속 액체의 열’로 보고 용기의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용기가 과열하듯이 화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폭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smolder’가 원래 사용되던 의미를 지닌 (16a)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16b)의 문장을 살펴보자.

- (16) a. The burning building on *fire* is still *smoldering* today.
 b. Any why should it, he reflected, when a sullen *anger* *smoldered* in him still?

(16a)에서 보듯이 ‘smolder’는 원래 ‘불’이 그 주어가 된다. Lakoff(1987)와 Kövecses(2000)에서도 ‘smolder’를 ‘불 은유’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trigger’이 원래 사용되던 의미를 지닌 (17a)의 문장과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17b)의 문장을 살펴보자.

- (17) a. The one thousand pound *bomb* was *triggered* by a wire.
 b. The *anger* was *triggered* by a clash between photographers

and the actor.

(17a)에서 알 수 있듯이 ‘trigger’은 ‘explode’와 마찬가지로 ‘bomb(폭탄)’이 원래의 주어이다. 따라서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trigger’도 ‘anger’를 ‘불’로 보고 있는 은유적 양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국어 분석 자료에 나타난 ‘불 은유’ 양상 동사인 ‘치밀다, 치밀어오르다, 치솟다, 치받치다, 폭발하다’에서 ‘화’를 ‘불’로 보는 표현을 살펴보자. 우선 ‘치밀다’가 지닌 원래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발견된 문장은 (18)과 같다.

- (18) a. *울화가 치밀었다.*
b. 그 남편을 생각하니 은근히 *화가 치밀기*까지 했다.
c. 허허. *화가 치밀어* 오르고 기가 찰 노릇일세.

(18a)에서 보듯이 ‘치밀다’의 원래 목적어는 ‘욕심 · 화기 · 불길 · 연기’ 등으로 이들을 통해 ‘치밀다’가 ‘불 은유’임을 알 수 있다. ‘치밀어 오르다’도 ‘치밀다’와 마찬가지로의 목적어를 가지며 동일하게 ‘불 은유’ 양상을 지닌다. 임지룡(2000)에선 ‘치밀다’를 ‘열 은유’로 보았으나 그 원래의 목적어가 ‘불’임을 감안해 본 연구에선 ‘치밀다’를 ‘불 은유’로 보기로 한다. 또한 ‘치받치다’가 원래 사용된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은 (19)와 같다.

(19) a. 불길이 치받쳤다.

b. 그녀는 너무 화가 치받혀 말이 제대로 안 나왔다.

(19a)에서 보듯이 ‘치받치다’가 사용되는 원래 목적어는 ‘불길·연기’등으로 ‘치받치다’는 ‘불길·연기 등이 세게 쏟아져 오르는 것’을 말한다(이희승 1997). 마지막으로 ‘폭발하다’가 원래 사용되는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비교해 보면 (20)과 같다.

(20) a.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b. 사장님의 화가 폭발했을 때 직원들은 하나 둘 씩 눈치를 보며 밖으로 나갔다.

(20a)에서 보듯이 ‘폭발하다’란 동사는 영어의 ‘bomb(폭탄)’과 유사하게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가 그 주어가 된다. 임지룡(2002)에선 ‘폭발하다’를 ‘그릇 속의 액체’로 보았으나 (20a)의 예문에서 살펴 보았던 것처럼 이 동사를 ‘불’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자료 중 ‘치솟다’란 표현이 사용되는 예문인 (21)을 살펴보겠다.

(21) a. 성난 불꽃이 치솟았다.

b. 신석주는 화가 폭뒤까지 치솟아서 쉽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임지룡(2000)에선 ‘치솟다’를 ‘열’로 보았으나 (21a)에서 알 수 있듯이 ‘치솟다’는 ‘불’을 그 목적어로 가진다. 따라서 ‘치솟다’를 본 연구에선 ‘불’로 보기로 한다.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를 ‘불’로 보는 은유적 양상은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anger’를 불로 보는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는 ‘burn, explode, smolder, trigger’ 등이 있으며 한국어의 ‘화’를 ‘불’로 보는 은유는 ‘치밀다, 치밀어 오르다, 치솟다, 치받치다, 폭발하다’로 이 중 영어의 ‘explode’와 한국어의 ‘폭발하다’는 두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3.2.3 물 은유

‘물 은유’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으로 ‘열 은유’와 ‘불 은유’와 유사할 것 같으나 ‘물 은유’는 3.1과 3.2에서 논의한 ‘열 은유’와 ‘불 은유’가 가지는 자질 중에서 [빛, 열, 온도] 등의 자질이 빠진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는 ‘화(anger)’를 단순한 ‘불’로 인식한 경우로 그 근

원영역은 '물'이며 목표영역은 '화(anger)'이다. 이 은유는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은유이며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영어에선 'distil, flush, drain'이 있고, 한국어에선 '번지다'가 이에 해당한다.

먼저 영어에서 'distil'이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지닌 (22a)의 예문과 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22b)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 (22) a. The *whiskey* had been *distilled* in 1926.
b. By now, her *anger* at him had *distilled* to the warming spirit of pure.

(22)에서 보듯이 'distil'은 원래 '증류하다'란 의미로 whiskey와 같은 물(액체)을 그 주어로 취한다. 본 연구 자료에 나타난 'drain'과 'flush'도 'distil'과 마찬가지로 '물 은유' 양상을 지니며 이러한 동사들이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지닌 (23a)와 (24a) 예문과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23b)와 (24b)를 비교해 보자.

- (23) a. She *flushed* the toilet and went back in the bedroom.
b. She *flushed* with *anger*.

- (24) a. Miners built the tunnel to *drain* water out of the mines.
 b. When I saw Peng Yu-wei stuck there in the mud, all my
anger drained from me.

(23a)에서 보듯이 'flush'는 원래 '화장실과 같은 곳에서 어떠한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물로 어떤 공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흘려 보내는 물'이며, 'drain'도 원래 목적어는 어떤 장소나 물체에서부터 온 '물'이다. 이러한 동사들의 원래 의미가 'anger'로 확대되어 '화는 물이다'란 은유적 양상을 낳는다. 이렇게 '화'를 물로 보는 은유적 양상은 한국어의 동사 '번지다'에도 나타난다. '번지다'가 원래 사용되는 의미를 지닌 (25a)의 예문과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25b)를 비교해 보자.

- (25) a. 실수로 쏟은 수성물감이 옷에 번지기 시작했다.
 b. 그의 화가 점점 나에게 번지기 시작했다.

(25a)에서 보듯이 '번지다'가 원래 사용되는 주어는 '그림 물감'과 같은 물이다. 이러한 표현이 '화'로 옮겨와 '화는 물이다'란 은유적 양상을 낳는다.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나타난 '물 은유'는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영어와 한국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은유였지만

기존 연구에선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난 은유적 양상이다. 동일한 ‘물’이라도 온도의 자질이 있으면 ‘열 은유’로 사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액체 은유’로 사용된다.

3.2.4 용기 은유

‘용기 은유’는 본 연구에서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은유로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영어는 ‘involve, lay (in), bring (out), contain, convey, entail, keep’ 등이 있으며, 한국어는 ‘나다, 솟다, 억누르다, 짊 차다’ 등이 있다. 이 은유는 2장에서 언급한 ‘화(anger)’ 은유에 대한 기존 연구 중 영어에서는 나타난 은유지만 한국어에선 나타나지 않은 은유였다. 그러나 본 연구 분석 결과 ‘용기 은유’는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이다.

‘용기 은유’에 관한 정의는 레디(M. Reddy)가 언어에 대한 우리의 언어가 대략 다음과 같은 복합 은유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본 것이 그 시작이다(Lakoff & Johnson 1980: Chapter 3). (26)을 통해 그 구조를 알아보자.

(26) Idea (or meaning) are objects

(아이디어(또는 의미)는 물건이다)

Linguistic expressions are containers

(언어 표현은 그릇이다)

Communication is sending

(의사 소통은 전달하는 것이다)

위의 (26)에 따르면 화자(speaker)는 아이디어(물건)를 낱말(그릇) 속에 넣고, 그것을 청자(hearer)에게 (어떤 도관(container)을 따라) 보내고, 그 청자는 그 낱말/그릇으로부터 아이디어/물건을 꺼낸다. 따라서 화자는 '화(anger)'라는 것을 어떠한 그릇 속에 넣고 그것을 청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화'라는 감정이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들 각각은 경계짓는 표면과 안-밖 지향성을 지닌 하나의 '그릇'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밖 지향성을 표면에 의해 경계지어지는 다른 물리적 물건들에 투사한다. 그래서 방이 하나의 '용기'로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상물은 '용기'로 간주될 수 있다(Lakoff & Johnson 1980):29).

우선 영어의 'anger'에 나타난 '용기 은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bring (out)'에 대한 비교예문은 (27)과 같다.

(27) a. He brought out his cigarette in his porket.

b. The full moon in your sign will *bring out* your anger.

(27a)에선 'in his pocket(주머니 안에서)' 무엇인가를 꺼낸다는 것처럼 '호주머니'라는 '용기'가 'bring'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bring'을 '용기'로 본 은유는 Lakoff(1987)에서 언급했던 것과 일치한다. 또한 'contain'이 원래 지닌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비교하면 (28)과 같다.

(28) a. The bag contained a Christmas card.

b. He took a deep breath to *contain* his anger and touched the Labrador.

(28a)에서 보듯이 'contain'은 'bag'이라는 '용기'가 그 대상이 되고 이것이 'anger'로 그 목표영역을 달리하여 (28b)와 같은 은유적 표현이 나타난다. '화(anger)가 용기'라는 은유적 양상은 '화(anger)'가 용기 안에 'contain(담겨짐)' 할 수 있고, 'involve(포함)'되며, 'lay in(안에 놓아 둠)'되고, 'convey(용기 안에 넣어 나뉘)'하고 'entail, keep(용기 안에 넣어서 포괄함)'할 수 있다. 이 중 'keep¹⁸⁾'과 'entail'은 'keep'과 상응되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화'를 '용기'로 본 한국어 분석 자료를 살펴보자. 이에 해당하는 동사는 '나다, 솟다, 억누르다, 꺾차다'로, 본 연구 분석

18) Kövecses(1986)에서도 'keep'을 '용기 은유'로 보았다.

자료 중 가장 많은 동사 언어현상 빈도를 지녔던 '나다'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한국어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비교해 보면 (29)와 같다.

- (29) a. 눈에서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b.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화가 나서 학생을 불러냈다.

(29a)에서 보듯이 '나다'는 '눈'이라는 '신체 상의 용기'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 것이 그 원래의 의미이며 이 의미가 '화'로 확대되어 '화가 나다'가 '용기 은유'란 은유적 양상을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쏟다'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30)에서 비교해 보자.

- (30) a. 땅에서 지하수가 솟았다.
b. "알았어, 염병할." 하고 나는 화가 솟아서 몸이 떨렸다.

(30a)에서 보듯이 '쏟다'는 '속에서 겉으로 세차게 나옴'을 의미하는 동사이다. '땅'이라는 일종의 용기 속에서 바깥으로 어떤 물질이 나오는 의미를 지닌 '쏟다'가 '화'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화가 솟다'라는 '용기 은유'라는 은유적 양상을 지닌다. 임지룡(2002)에선 '쏟다'의 근원영역을 '그릇 속의 액체'로 보았다. 이것 역시 '화'를 '용기'로 인식한 은유적 양상에 부합된다. 일정한 용기 안에 '화'가 담겨져 있고, 이것이 '나고',

‘숫고’, 용기 안에 꺾꺾 ‘눌러놓으며’ 용기 안에 ‘꽂 차다’란 은유적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화를 ‘용기’로 보는 은유는 영어와 한국어에서 모두 나타나는 은유이며 이것은 신체를 ‘감정의 용기’로 보고 ‘화’를 용기 속에 담겨진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선 ‘화’와 가장 많은 동사 연어를 이룬 ‘나다’란 단어이기 때문에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밝힌 한국어 ‘화’의 은유적 양상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했다.

3.2.5 적 은유

‘화(anger)’를 ‘적’으로 본 은유는 2장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영어와 한국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은유적 양상이다. 또한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도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이다. ‘화(anger)’를 ‘적’으로 본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는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영어에선 ‘overcome, confront, render’ 등이 있으며, 한국어에선 ‘못 이기다’가 있다. 이들의 근원영역은 모두 ‘적’이며 목표영역은 ‘화’이다.

우선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영어에서 나타난 표현들 중 몇 가지를 예문과 함께 살펴보겠다. ‘overcome’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31)에서 비교해 보자.

- (31) a. We were *overcame* by the Red Army.
 b. Jess put her hand to her burning cheek, *anger overcoming*
 her terror.

(31a)에서 ‘overcome(이기다)’는 그 대상이 ‘Red Army(적군)’와 같은 ‘적’이며 그 대상이 (31b)와 같이 ‘anger’와 확대되어 ‘화는 적이다’란 은유적 양상을 지니게 된다. ‘overcome’을 ‘적’으로 본 은유는 Lakoff(1987)와 Kövecses(198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듯 ‘화(anger)’는 ‘overcome(이겨냄)’하고, ‘confront(직면)’하고 ‘render(보복)’할 수 있는 ‘적 은유’의 양상을 지닌다.

다음으로 ‘화’를 ‘적’으로 보는 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한국어 동사를 원래 의미와 함께 살펴보겠다. ‘화’를 ‘적’으로 보는 표현은 한국어에서 ‘(못) 이기다’란 것이 있다. (32)에서 그 원래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예문을 비교해 보겠다.

- (32) a. 우리 군대는 전쟁에서 적군을 이겼다.
 b. 아버지는 화를 못 이겨서 부들부들 떨었다.

(32a)에서 보듯이 ‘(못)이기다’의 대상은 ‘적’이다. 이 의미가 ‘화’로 확대되어 (32b)와 같이 ‘화를 못 이기다’가 되었다. 임지룡(2000, 2002)에서도

역시 '(못) 이기다'를 '적'으로 본 것은 본 연구와 일치되는 점이다.

3.2.6 성가심 은유

'화(anger)'를 '성가심'으로 본 은유는 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영어의 'anger'에서만 나타난 은유적 양상이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선 이러한 '성가심'을 단지 '신체적 성가심'이라 보고 그 은유적 양상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선 신체적 성가심이 아닌 전반적인 '성가심'으로 보고 이 은유적 양상을 비교하겠다.

'성가심 은유'는 본 연구 분석 자료 중에서 영어와 한국어 둘 다에서 나타나는 은유이다. 이에 해당하는 동사는 영어에선 'avoid, suffer, suit' 등이며, 한국어에선 '참(지 못하)다'로 근원영역은 '성가심'이며 목표영역은 '화(anger)'이다.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성가심'에 표현 중 한 가지인 'avoid'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33)에서 비교해보겠다.

- (33) a. She eventually had to lock herself in the toilets to *avoid* him.
- b. The statehouse fire escape to *avoid* senators' *anger* over his

choice of committee assignments.

(33a)에서 '성가심'의 대상은 'him'이며 (33b)에서 성가심의 대상은 'anger'이다. 'suffer'에 해당하는 대상도 역시 '성가심'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가심'이 [-성가심]의 의미자질을 지니게 되면 'suit(적합하다)'하게 된다.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위의 동사들은 모두 그 대상이 '성가심'이며 한국어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참(지 못하)다'도 (34)에서 보듯이 그 대상이 '성가심'이 된다.

(34) a. 대부분의 금연자들은 담배의 유혹을 못 참아 다시 담배를 피운다.

b. 그 친구의 태도에 치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34a)에서 보듯이 동사 '못 참다'의 대상은 성가심의 대상인 '(담배의) 유혹'이다. 이러한 '성가심'에 해당하는 표현이 '화'로 확대되어 '화(anger)는 성가심이다'란 은유가 발생한다.

3.2.7 물체 은유

'화(anger)'를 '물체 은유'로 본 것은 2장에서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

한국어 '화'에만 나타난 은유적 양상이었다. 그러나 '물체 은유'는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이었으며, 영어의 'anger'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이었다. '물체 은유'에서 근원영역은 '물체'이며, 목표영역은 '화(anger)'이다.

이러한 은유적 양상은 '화(anger)'를 '증가, 나눔, 결합, 양도, 유지' 등이 가능한 물체로 보는 다양한 은유적 양상이 가능하게 되는데, 우선 '화(anger)'를 증가 가능한 물체로 본 은유에 대해 (35)에서 원래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들을 비교해 보겠다. 이에 해당하는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영어 동사는 'add, gain, increase, arise, grow, develop' 등이며, 한국어 동사는 '돋우다, 돋구다'이다. 우선 영어 동사 중 하나인 'add'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35)에서 비교해 보자.

(35) a. *Add the grated cheese to the sauce.*

b. *He did not, but it added to his anger.*

(35a)에서 보듯이 'add'의 원래 의미는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에 더한다'이다. 이러한 원래 의미가 'anger'에 확대되어 'anger'의 정도를 add(더하다)란 의미가 되었다. 또 다른 증가 은유인 'grow'를 (36)에서 살

펴보자.

- (36) a.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in Poland has *grown* by
more than a quarter in the last month.
- b. Her *anger* grew and with it she became shrewish.

(36a)에서 보듯이 'grow'의 원래 의미는 '양'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36b)에서 보는 것처럼 'anger'의 양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Kövecses(1986)에선 'grow'를 (37)에서처럼 '위험한 동물'로 보았다.

- (37) His *anger* grew.

(37)과 같은 Kövecses의 주장은 'anger'는 'zero level'에 가까울 때만 안전한 것이며, 이것이 grow(자라다)하게 되면 '위험한 동물'이 된다는 것에 뒷받침된 견해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선 'grow'를 '양적 증가'로 보고 'anger'란 것이 양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물체로 보았다. 본 연구 분석 자료에 나타난 '화는 증가하는 물체'라는 은유는 'add, gain, grow, arise, develop(더하다, 증가하다)'가 지닌 원래의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증가하는 물체'에 대한 은유는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에 나타난 한국어 동사 '돋우다, 돋구다' 인데 이 동사들의 원래 의미

와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에 나타난 문장들을 (38)과 (39)에서 비교해 보자¹⁹⁾. 우선 ‘돋우다’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 나타난 문장들을 비교해 보면 (38)과 같다.

- (38) a. 남의 신경을 돋우지 마라.
b. 화를 돋우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38a)에서 보듯이 ‘돋우다’의 원래 의미는 ‘위로 끌어 올리거나 높아지게 하다’이다. 이러한 증가의 의미를 지닌 ‘돋우다’가 ‘화’로 확대되어 ‘화’가 증가되는 (38b)와 같은 은유가 생겨났다. 또한 ‘돋구다’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39)에서 비교해 보자.

- (39) a. 안경의 도수를 돋구어라.
b. 왜 그런 소릴 해서 진사어른 화를 돋궤?

(39a)에서 보듯이 ‘돋구다’의 원래 의미는 ‘더 높게 하다’이다. ‘안경의 도수를 높게 하는 것’은 ‘도수의 정도를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런 원래의 의미가 ‘화’로 확대되어 화의 정도가 증가하는 (39b)와 같은 은유적 표현이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의 의미 자질, 즉 ‘감소’가 나타나기

19) 임지룡(2000)은 ‘물체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로 ‘감추다, 보태다, 견잡을 수 없다, 사다, 풀다’ 등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동사들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돋우다’와 ‘돋구다’가 본 연구 분석 자료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도 하는데,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 중 영어의 'anger'에선 이에 해당하는 동사는 없었으나 한국어 '화'에선 '가라앉다'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화(anger)'를 '나눌 수 있는 물체'로 본 은유적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다.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이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는 'cut, divide (into), share' 등이며 한국어 연구 분석 자료엔 이와 같은 동사가 없었다. 이 중 'divide (into)'의 원래 의미와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40)에서 살펴보자.

- (40) a. The physical benefits of exercise can be *divided into three factors*.
b. The immediate causes of *anger* could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40a)에서 보듯이 어떠한 물체를 'divide'란 표현이 'anger'로 확대되어 'anger'를 나눌 수 있는 개체로 보았다. 이처럼 'anger'는 'cut(자르다)'하고 'divide, share(나누다)'할 수 있는 물체이다. 'anger'를 나눌 수 있으면 합칠 수도 있다. 'anger'를 합칠 수 있는 물체로 본 동사들은 'combine, consolidate' 등으로 이 중 'combine'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41)에서 비교해 보자.

- (41) a. The church has something to say on how to *combine*
freedom with responsibility.
- b. The vodka and her *anger* were *combining* to free her
 tongue.

(41a)에서 보듯이 ‘combine’의 원래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한데로 ‘결합하다’이다. 이런 원래의 의미가 (41b)에서처럼 ‘anger’로 확대되어 ‘anger’라는 것을 합칠 수 있는 물체로 본 은유적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anger’를 합칠 수 있는 물체로 본 은유는 ‘consolidate(뭉치다)’란 동사에서 나타난다.

이 외에도 ‘화(anger)’를 물체로 본 은유가 많이 존재하는 데, ‘화(anger)’는 또한 양도할 수 있는 물체로 본 ‘take over’와 ‘풀 수 있는 물체로 본 ‘loose’, 빌려줄 수 있는 물체로 본 ‘lend’, 유지할 수 있는 물체로 본 ‘last’, 사라질 수 있는 물체로 본 ‘vanish’가 이에 해당한다. 이 중 ‘loose’는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풀다’가 여기에 상응된다.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선 ‘화(anger)’를 ‘증가, 나눔, 합침, 양도, 품, 빌려줌, 유지, 사라짐’이 가능한 물체로 본 은유가 가장 다양했다. 이 은유는 2장에서 살펴본 영어의 ‘anger’의 은유적 양상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빠져 있었으나, 본 연구 분석 자료로 볼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은유적 양상임을 알 수 있었다.

3.2.1~3.2.7에서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은유적 양상 중 영어의 'anger'와 한국어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은유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영어의 'anger'에만 나타난 은유적 양상을 3.2.8~3.2.12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8 통제 은유

'화(anger)'를 '통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본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는 본 연구 분석 자료 중에서 영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curb, control, direct, force, let, restrain' 등의 동사가 있다. 이들의 근원영역은 모두 '통제물'이며 목표영역은 '화(anger)'이다.

'화는 통제 가능물이다'에 해당하는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몇 가지를 예문과 함께 살펴보겠다. 우선 'control'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42)에서 비교해 보자.

(42) a. He has a computer to *control* the *gate*.

b. She try to *control* the *anger*.

(42a)에서 보듯이 'control'은 그 대상이 통제 가능 개체인 'gate'이다. 이

처럼 ‘화(anger)’도 통제 가능한 개체로 본 표현이 (42b)와 같다. 그러나 만약 [-통제]의 의미자질을 지니게 되면 (43)의 ‘let’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게 된다.

(43) a. I *let* him talk to the girl.

b. I have to *let* hatred and *anger* around him.

(43b)에서 보듯이 ‘let anger(화를 내버려둔다)’란 표현도 ‘화(anger)’를 통제 가능한 개체로 본 표현이다. 이처럼 ‘화(anger)’는 ‘restrain, curb (구속)’하고, ‘control(통제)’하고, ‘direct(감독)’하고, ‘force(억지로 행함)’하고, ‘let(내버려둠)’ 할 수 것이다.

3.2.9 장소 은유

‘화(anger)’를 ‘장소’로 본 은유는 본 연구 분석 자료 중에서 영어에서만 나타난 은유로 이에 해당하는 동사는 ‘subside, enter, explore, transfer’²⁰⁾ 등이며, 이들의 근원영역은 ‘장소’이며 목표영역은 ‘화(anger)’이다.

우선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 중 ‘enter’의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44)에서 비교해 보자.

20) ‘장소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 중 ‘subside’는 ‘건물이나 빌딩’ 등이 그 목적어가 ‘건물, 땅’ 등이 될 수 있으나 이것들을 모두 ‘장소’로 보겠다.

(44) a. He *entered* the room briskly and stood near the door.

b. Later, *anger* and *fright* *entered* the parade.

(44a)에서 'enter'의 원래 의미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다'이다. 이러한 원래의 의미가 '화(anger)'로 확대되어 (44b)에서처럼 '화(anger)'를 '장소'로 보는 은유가 생겼다. '장소'가 근원영역인 또 다른 표현인 'explore'를 (45)에서 살펴보자.

(45) a. I just wanted to *explore* Paris.

b. Where repressed hurt and previously unarticulated *anger* are *explored*.

(45a)에서 보듯이 'explore'의 원래 의미는 '어떤 장소를 탐험하다'이다. 이러한 원래의 의미가 (45b)에서 보듯이 '화(anger)'로 확대되어 '화는 장소다'란 은유가 나타난다. 이 외에도 '화(anger)'를 '장소'로 보는 은유는 'subside(가라앉음)'며 'enter(들어감)'고 'explore(탐험함)'하며, 'transfer(옮김)'하게 된다. 이렇듯 '화(anger)'를 '장소'로 보는 은유적 양상은 본 연구 분석 자료 중에서 영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3.2.10 빛 은유

본 절에선 '화(anger)'를 '빛'으로 본 은유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화가 빛'이라는 은유는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나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영어의 'anger'에서 나타난 은유적 양상이었다. 이 은유에서 근원영역이 '빛'이고 목표영역이 '화(anger)'이다.

'빛 은유'는 본 연구의 한국어 분석 자료에선 나타나지 않은 표현이었으나 영어의 'flicker, focus, glint, glitter, reflect'가 이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이 중 'glitter'가 원래 지닌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46)에서 비교해 보자.

- (46) a. The bay *glittered* in the sunshine.
b. His blue eyes *glittered* with anger.

(46a)에서 보듯이 'glitter'은 원래 'sunshine(햇빛)'과 같은 '빛'이다. 이러한 원래의 의미가 'anger'로 확대되어 '화가 반짝반짝 빛났다'란 표현이 사용된다. 그러나 'dark, fade' 등의 동사는 '어두워지다'란 의미의 [-빛]의 의미자질을 지닌 동사이며, 'glint, glitter'는 '반짝이다'란 의미를 지닌다. 또한 'flicker'는 '등불'이 '깜박이는 것'이며, 'focus'는 초점을 맞추는 대상이 '빛'이 된다. 'reflect'도 '빛을 반사하는 것'으로 영어의

‘anger’를 빛으로 보는 은유는 한국어의 ‘화’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독특한 표현으로 한국어에 대한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은유적 양상이었다.

3.2.11 더러움 은유

이 절에선 ‘화(anger)’를 ‘더러움’으로 보는 은유적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화(anger)’를 ‘더러움’ 혹은 ‘청소의 대상’으로 보는 은유는 2장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영어의 ‘anger’에만 해당하는 은유로 근원영역은 ‘더러움’이고 목표영역은 ‘화(anger)’이다.

‘더러움 은유’는 본 연구의 한국어 분석 자료에선 나타나지 않은 표현이었으나 영어의 ‘clear, purge, sweep’ 등이 이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이 중 ‘clear’와 ‘sweep’가 원래 지닌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47)과 (48)에서 비교해 보자. 우선 ‘clear’에 해당하는 문장은 (47)과 같다.

- (47) a. To *clear* the land and harvest the bananas they decided
they deed a male workforce.
b. Then leaned against it while trying to *clear* the *anger* form

her mind.

(47a)에서 보듯이 'clear'는 '깨끗함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더러움'이다. 또한 'sweep'가 원래 지닌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문장을 (48)에서 살펴보자

- (48) a. She was *sweeping* a *dust* frying pan in the kitchen.
b. Relief and *anger swept* through her as she looked up into the family.

(48a)에서 'sweep'의 대상은 'dust(더러움)'이며, 이러한 원래 의미가 'anger'로 확대되어 'anger'가 쓸어 버려야 할 '더러움'임을 말해준다. 이렇듯 'anger'를 '더러움'으로 보는 은유적 양상은 이 외에도 'brush, purge'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은유적 양상은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한국어의 '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다.

3.2.12 공포 은유

'화'를 '공포'로 본 은유는 선행 연구에선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영어에서만 나타나며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는 'fear,

surprise'등이 있다. 이 은유에서 근원영역은 '공포'이며 목표영역은 '화'이다.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공포 은유'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 중 'fear'가 지닌 원래 의미와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예문을 비교해 보면 (49)와 같다.

- (49) a. It seems to me that if *people fear* you they respect you.
b. Although he *feared* his father's *anger*, he was unable to summon the courage to move his house.

(49a)에서 보듯이 'fear'의 대상은 '공포(두려움)를 느끼는 사람'이다. 이러한 원래의 의미가 'anger'로 확대되어 '화는 공포의 대상이다'란 은유적 양상이 된다. 또한 'surprise'의 원래 의미도 (50a)에서 보듯이 '공포의 대상'이다.

- (50) a. She was very *surprised* at the *ghost* behind the curtain.
b. Once more the *anger* in her face *surprised* him.

(50a)에서 공포를 느낀 대상은 'ghost'이다. 공포의 대상을 보면 'surprise(놀람)'되는 것처럼 이 원래의 의미가 'anger'로 확대되어 '화는 공포의 대

상이다'란 은유적 양상이 가능해졌다.

3.2.8~3.2.12에선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영어의 'anger'에만 나타난 은유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3.2.13에선 한국어 '화'에서만 나타난 은유적 양상인 '음식물 은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3.2.13 음식물 은유

'화(anger)'를 '음식물'로 본 은유는 2장에서 살핀 한국어 '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은유적 양상이며,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한국어의 '화'에서만 나타나는 은유로 그 동사는 '삭(이)다'이다. 이것의 근원 영역은 '음식물'이며 목표영역은 '화'이다.

'화(anger)'를 '음식물'로 보는 은유는 본 논문 한국어 분석 자료인 '삭(이)다'가 있다. (51)에서 '삭(이)다'의 원래 의미와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예문을 비교해 보자.

(51) a. 식혜가 먹기 좋게 삭았다.

b.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며 화를 삭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51a)에서 보듯이 '삭(이)다'의 원래 의미는 '먹은 음식이 소화되다'이다. 이러한 '음식물'에 해당하는 동사가 (51b)에서 보듯이 '화'로 확대되어 '화는

음식물이다'란 은유적 양상을 낳는다.

'화(anger)'를 '음식물'로 본 은유는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그 빈도수는 높지 않지만 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동사 외의 동사와 결합하여 '음식물 은유'를 나타낸다.

3.2.14 기타 은유

3.2.1~3.13에서 밝힌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 대한 은유적 양상 외에도 본 연구 분석 자료에 나타난 몇 가지 은유적 양상이 있다. 우선 '화(anger)'를 '동물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보는 은유가 있다. 이 은유에 해당하는 동사는 'bite(이빨로 물다)'로 영어의 'anger'에만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이었다. 이것은 Lakoff(1987)에서 본 '화는 동물의 공격적인 행동이다'란 은유에 부합된다. 또한 '화(anger)'를 '꽁꽁거리는 것'처럼 '동물'로 보는 은유에 해당하는 'grunt(꽁꽁거리다)', '짐'으로 보는 'release²¹⁾(풀다)' 등이 있으며 이 모든 동사는 영어의 'anger'에서만 해당된다. 또한 'anger'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물체'로 본 'see, glimpse, display, project, sense, show, think'와 '인지할 수 있는 물체로 본 'ponder, consider, recognize, understand' 등의 동사가 본 연구 분석 자료 중 영어의 'anger'에서 나타난 은유적 양상이었다.

21) Kövecses(1986)에서도 'release'를 '짐'으로 보았다.

또한 본 연구 분석 자료에서 영어의 'anger'와 동사언어를 이루는 동사들이 모두 은유적인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describe anger'란 표현은 단순히 '화(anger)'를 묘사할 뿐,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3.2에서는 은유적 표현만으로 그 은유적 양상을 분류하였다.

3.3 은유적 양상 요약

3.2에서 살펴본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 대한 은유적 양상 중 예선 영어의 'anger'에서만 나타난 은유는 3.2.1~3.2.7은 본 연구 분석 자료 중에서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이었으며, 3.2.8~3.2.11은 영어의 'anger'에서만 나타난 은유적 양상, 3.2.12는 한국어 '화'에서만 나타난 은유적 양상이었다.

2장의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영어의 'anger'에 관한 은유적 양상 중 '열·불·적·성가심 은유'는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이나 본 연구에선 여기에 '물·빛·더러움·통제·물체·장소 은유'가 더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 중 '짐·사로잡힌 동물의 행동·침해·자연력·작용하는 기계·사회적 우월자 은유'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어의 '화'에 관한 은유적 양상 중 '열·불·적·음식물·물체 은유'는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것이나 본 연구에선

여기에 '물·용기·성가심 은유'가 더 추가되었다. 또한 기존 연구 중 '파도 은유'는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보이는 은유적 양상을 그 빈도수와 함께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은유적 양상	영어('anger')	한국어('화')
열 은유	4.88%	0.23%
불 은유	4.88%	6.06%
물 은유	4.88%	0.03%
용기 은유	15.9%	85.86%
적 은유	3.7%	0.03%
성가심 은유	4.88%	1.2%
물체 은유	24.27%	2.26%
통제 은유	13.4%	-
장소 은유	8.53%	-
빛 은유	6.1%	-
더러움 은유	3.7%	-
공포 은유	4.88%	-
음식물 은유	-	0.2%

<표 1> 은유적 양상과 그 빈도수

<표 1>에서 보듯이, 영어의 'anger'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은유적 양상은 '물체 은유(24.27%)'이며 그 다음이 '용기 은유(15.9%)', '통제 은유(13.4%)'이며, 한국어의 '화'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은유적 양상은 '용기 은유(85.86%)'이다.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를 비교해 볼 때, 두 언어를 모두에서 가

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은유적 양상은 한국어 '화'에서 나타난 '용기 은유(85.68%)'이다.

영어의 'anger'는 상위 빈도수 3개(물체·용기·통제 은유)를 제외한 다른 은유는 거의 비슷한 빈도수를 지니며, 한국어 '화'는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용기 은유'를 제외하면 나머지 은유들의 빈도수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연구 분석 자료로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 모두에서 가장 많은 은유적 양상은 한국어의 '용기 은유'이며, 영어의 'anger'에서 가장 많은 은유적 양상은 '물체 은유', 한국어 '화'에서 가장 많은 은유적 양상은 '용기 은유'로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나타나는 연어현상과 은유적 양상의 차이를 코퍼스를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코퍼스를 언어자료로 채택하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anger)'에 대한 은유적 양상을 찾아보았다.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어떠한 공통적인 은유적 양상이 존재하는지와 각 언어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코퍼스 분석을 통해 각 빈도수에 대한 통계치가 두 언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은유적 양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영어와 한국어는 각기 'anger'와 '화'라는 동일한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라도 그 은유적 양상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영어의 'anger'와 한국어의 '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은 '열 · 불 · 물 · 용기 · 적 · 성가심 · 물체 은유'이며, 영어의 'anger'에서만 나타나는 은유적 양상은 '통제 · 장소 · 빛 · 더러움 · 공포 은유'이다. 또한 한국어에서만 발견된 '화'의 은유는 '음식물 은유'이다. 또한 영어의 'anger'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은유는 '물체 은유'이며, 한국어 '화'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은유는 '용기 은유'이다.

ABSTRACT

A Corpus-Based Comparative Study on Metaphor of 'Anger' in English and Korean

Jung, Myong-He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Pukyong National University*

Emotions are often considered to be feelings along, and as such they are viewed as being devoid of conceptual content. As a result, the study of emotions is usually not taken seriously but all emotional words have abundant linguistic categories and have to do with a systematic relationship among its lexical constructions.

On this study I focus on the metaphorical aspects of the emotional word, 'anger' in English and Korean and I compare the two

languages on the cognitive linguistics view. This thesis aims to discuss what kind of metaphorical aspects of 'anger' English and Korean have, to compare two metaphorical aspects and to discover the frequency of those metaphors.

So far the data for studies on the metaphor of emotional words are on the side of scholars' intuition and the text from novels so they have limited to frequent metaphors that we use in our lives. This study on the 'corpus' so it is possible to not only know the frequent metaphors of 'anger' but also the frequency of the use of metaphors of 'anger' in English and Korean. For this study I analyze 500 sentences compiled by the BNC(British National Corpus) in English and 500 sentences from the KAIST Concordance Program in Kore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qual metaphors of 'anger' in English and Korean are 'heat, fire, water, container, enemy, annoyance and object. Metaphors of 'anger' which are only found in English are 'control, place, light, dirty and fear' and metaphor of 'anger' only found in Korean is 'food'. For the aspects of frequency, in English the 'object' metaphor is the most frequent while in Korean the most frequent metaphor is the 'container.'

참 고 문 헌

- 김진해 (2000), 「언어연구」, 서울:한국문화사.
- 남영신 (1999), 「흔 국어사전」, 서울:성안당
- 박영순 (2000), 「한국어은유 연구」,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보영 · 아이작 (2002). 「Talk about Emotions」. 서울:넥서스.
- 이희승 (1997).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서울: 민중서림.
- 임지룡 (1997). 「인지의미론」, 서울:탐출판사
- _____ (1999).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6-2, 89-117
- _____ (2000). '화'의 개념화 양상. 「언어」 25-4, 693-721.
- _____ (2001a). '기쁨'과 '슬픔'의 개념화 양상. 「국어학」 37, 219-249.
- _____ (2001b). '두려움'의 개념화 양상. 「한글」 252, 109-143.
- _____ (2001c). '미움'의 개념화 양상. 「국어학」 73, 173-201.
- _____ (2002). 감정 표현의 인지적 양상. 「한국 언어 과학회 2002년 겨울 학술 발표회 논문집」, 69-120.
- 조성식 (1990), 「영어학 사전」, 서울: 신아사.
- Athanasiadou, A. & E. Tabakowska, (eds.) (1998). *Speaking of*

- Emotions Conceptualisation and Express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Driven, René & Verspoor Marjolijn (1998).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Johnson-Laird, P. N. and K. Oatley (1989). The language of Emotion: An analysis of a semantic field, *Cognition and Emotion* 3/4, 201-223.
- John Sinclair (ed.) (1995)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Harper Collins Publishers.
- Kim, Ki-hong (1978). *The Language of Emotion of Americans and Korean*. Ph. D.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 Kövecses, Z. (1986). *Metaphors of Anger, Pride, and Love: A Lexic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Concepts*. Amsterdam: John Benjamins.
- _____ (1989). The 'Container' Metaphor of Anger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Hungarian, in Rodman, Z., (ed.), *From a Metaphorical Point of View: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Cognitive Content of Metaphor*, 117-145. Berlin: Walter de Gruyter.
- _____ (1990). *Emotion Concepts*. London: Springer-Verlag.

- _____ (1998). Are there any Emotion-specific Metaphors?, in
Athanasiadou, A. and E. Tabakowska, (ed.), 127-151.
- _____ (2000). *Metaphor and Emotions: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99).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Basic Books.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I: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Levinson, Stenhpen C. (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emeier, S. & R. Driven, (eds.) (1997). *The Language of Emotions:
Conceptualization, Expression, and Theoretical Found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Saeed, John. I. (1997). *Semantics*. Cambridge: Blackwell Pub.

Ungerer, F. & H. J. Schmid (1996).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Longman.

Wierzbicka, Anna (1999). *Emotion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Diversity and Univers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